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학연구 제3집(1999)

동서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활성화 방안

김 영 구*

〈요약〉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이벤트의 개발은 지역사회의 경제·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그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진다.

지역이벤트를 개최목적과 지역특성반영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벤트개최목적은 주민공동체의식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로 나누고, 또한 이벤트의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이벤트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누었다.

지역주민공동체의식함양을 목적이며 지역단위특성이 있는 이벤트를 지역고유이벤트라 하였고,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 또는 지역의 지리적특성 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이다. 반면에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정도가 낮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체육대회 등 순수 공동체의식제고에 목적을 둔 이벤트이다. 또한 문화적 요인 등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특성을 지니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지역단위특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낮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과 전남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들의 현황을 보고, 동서지역 특성을 살핀 다음, 동서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경남과 전남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수려한 한려해상, 지리산, 섬진강과 같은 자연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과 경남 공히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쌀농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전남에는 제철,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경남지역에는 중공업 산업들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결합하여 양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 개발방향이 모색되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보고, 사명대사, 허준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동서지역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였던 바 이를 이벤트화 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I. 서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이벤트의 개발과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는 첫째,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특정지역의 이벤트가 전국 차원의 관심을 이끌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참여

*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홍보수단 내지 관광자원이 된 측면이 있다.

둘째, 주민들의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지역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이벤트행사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역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 이벤트는 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발전,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명도를 제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제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의 개발과 활성화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 이벤트의 개발방향을 모색한 다음, 기존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이벤트 현황을 살피고, 그리고 동서지역관계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이벤트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역단위 이벤트의 특성화

1. 지역단위 이벤트

1) 지역단위 이벤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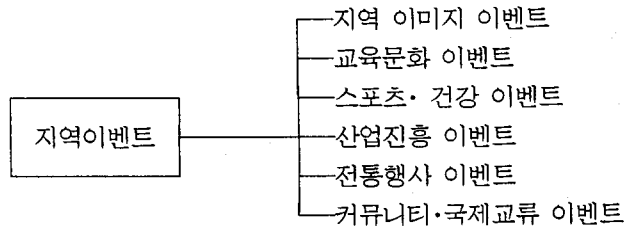
이벤트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리킨다.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전략으로서 계획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를 총칭한다. 이벤트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람·물건·정보를 모으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대면적 내지 개인적인 체험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이란 크게 지역내의 관광객유치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이벤트와 현지주민을 위해 행해지는 기획행사 등이 주류를 이룬다. 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이벤트를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당해지역의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기간동안 지역내에서 사전계획 하에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 실행하는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행사활동”을 의미한다.

2) 지역단위 이벤트의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벤트사업의 종류는 지역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림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 지역단위 이벤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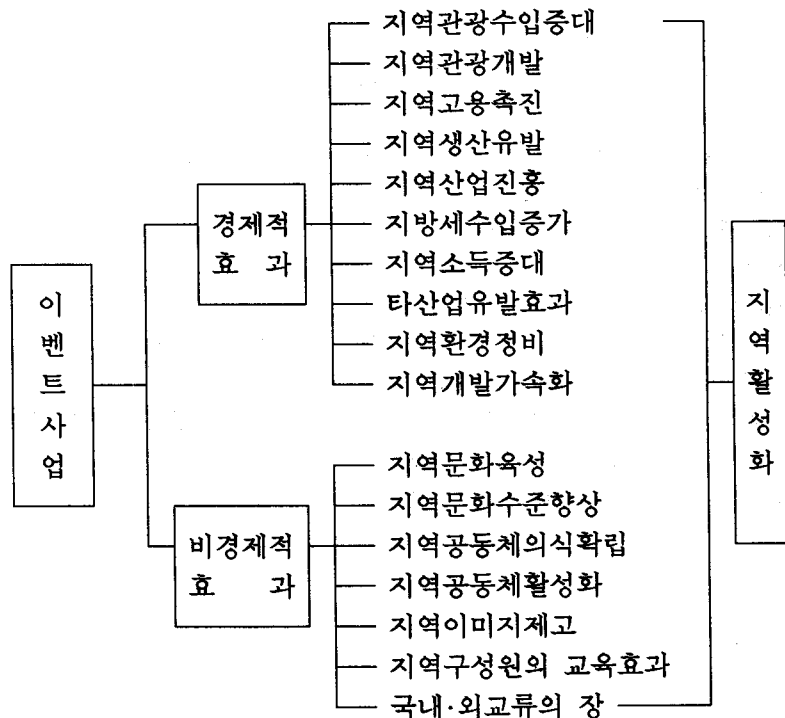


자료원: 장은주(1996), 지방자치단체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원, p.27.

3) 지역단위 이벤트로 인한 기대효과

이벤트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경제적 기대효과와 비경제적효과로 나누어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기대효과



자료원: 장은주(1996), 전계서, p.31.

2. 지역단위 이벤트의 특성화방향

1) 지역단위 이벤트의 유형

지역단위 이벤트를 특성화한다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단위가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벤트 자체를 특성화하는 하는 것이다. 그 지역단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 요소 또는 지리적 특성을 말하며, 이벤트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특성이란 이벤트가 열리는 목적을 말한다.

(1) 지역단위가 지닌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사업들의 행사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전통문화적 요소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전통문화적 요소란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공동체 내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이벤트행사로써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나 역사적 인물, 유적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천행사, 신화나 설화, 전통풍속·민속놀이, 종합향토축제, 농경제, 추수감사제, 마을굿, 역사·제의 행사, 예술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이벤트로는 강변 가요제, 철쭉제, 눈꽃축제, 산악제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을 살리는 이벤트

지방자치단체별로 열리는 이벤트 행사들을 그 행사 목적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귀속감을 높이고, 지역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고 지역의 구심점과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의 이벤트들은 지역주민들이 이벤트사업의 고객이 됨으로 내부지향적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벤트의 목적이 경제적인 효과에 있는 것으로 그 이벤트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 지역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거나, 해당지역의 특정산업을 홍보하거나 진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지거나, 지역정비의 효과를 나타내며,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의 이벤트들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외부지향적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역단위 이벤트를 4가지의 유형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지역 고유 이벤트

<표 1> 지역단위 이벤트의 4가지 유형

지역단위특성 개최목적	지역 단위 특성	
	유	무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고유 이벤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벤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고유경제 이벤트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행사내용이 전통문화적 요소 또는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행사로는 각종 도민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연날리기대회, 지역전통문화, 예술제, 세시풍속놀이, 농악경연대회, 제천행사, 역사, 제의행사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벤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행사내용에 전통문화적 요소 또는 지리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주요프로그램으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벤트사업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 걷기대회, 전통문화적인 요소가 배제된 각종 예술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다.

③ 지역 고유경제 이벤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 문화적 요소 또는 지리적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벤트사업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전통 문화적 요소 또는 지리적 특성을 관광 상품화하거나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되는 등 지역특성을 소재로 한 이벤트를 수단으로 지역경제를 진흥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인 예로 서귀포시의 칠선녀축제, 관광지 상설민속공연단 공연이벤트, 남원의 춘향제 등과 남제주군의 고사리 꺾기 대회 등을 들 수 있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지역의 어떤 특성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이벤트를 말한다. 즉 이벤트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축제, 부산 국제 영화제, 나아가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을 들 수 있다.

2) 지역이벤트의 유형별 특성화 방향

(1) 지역 고유 이벤트의 특성화 방향

지역 고유 이벤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요소가 포함된 행사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벤트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벤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문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전문요원을 각 기초단체마다 운영하는 것은 비용과 운영의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광역차원에서 기획기구 등을 설정하고 광역지역내의 기초자치단체들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관련정보를 교환하고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계획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에 민간단체로 「지역전통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두어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는 해당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들을 참가시킴으로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통향토문화이벤트 가운데에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관광상품화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고유경제이벤트로 전환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벤트의 활성화 방향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벤트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벤트이므로 특별히 지역주민이 이벤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벤트기획부터, 실시,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기나 행사규모 및 내용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단위의 행사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행사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치르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며, 대상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 주거지역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의 방학기간이나, 직장인의 휴가기간에 맞추어 이벤트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이벤트를 농한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농촌지역을 구성하는 계층적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에 대한 특정분야의 교육이나 계몽을 위한 이벤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이벤트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목적과 내용의 모색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지역 고유경제 이벤트 활성화 방향

지역 고유경제 이벤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문화상품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자연적 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특산물 또는 지역의 고유한 기업들이 산출하는 생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

를 말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특기할만한 전통문화이벤트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장을 개발하거나, 자치단체가 기존에 지닌 민속관련 박물관 등을 이벤트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들이다.

지역의 특유한 산업이 존재할 경우는 이들 산업체들과의 유기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이벤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벤트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가미하지 않는 행사를 말한다. 즉 이벤트 자체가 큰 매력이 되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리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이벤트를 말한다. 이러한 이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소재 및 아이디어의 발굴이다.

이러한 이벤트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홍보, 지역자원봉사자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3. 자치단체 이벤트의 활성화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성있는 이벤트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둘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준비를 통해 편리성과 동시에 지역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구성원의 의식수준향상을 통하여 선진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지역 이벤트는 단기간에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지역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이벤트사업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고유이벤트에 속하는 전통향토문화이벤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고유경제이벤트 또는 지역활성화이벤트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통향토문화이벤트 가운데에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관광상품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고유경제이벤트로 전환하여 이벤트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되게 한다.

한편, 전통향토문화이벤트가 순수하게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를 지역활성화이벤트와 함께 치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지역단위 이벤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규모만 크진 종합적인 행사 중심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사의 내용에 있어 전통문화적인 요소, 지역특성을 특색있게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특성 없이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활성화 이벤트의 경우, 점차적으로 시기나 행사규모 및 내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 단위의 행사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행사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치르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며, 대상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이벤트를 농한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벤트의 목적을 현재보다는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공동체육성이라는 포괄적인 목적 아래 다양한 세부목적들을 구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벤트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계몽을 위한 이벤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목적과 내용의 모색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독특한 문화전통, 지역특성에 입각한 이벤트사업을 관광상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을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이벤트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으나, 이를 공연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연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상품의 신규상품화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양화되고 있거나, 쇠퇴되고 있는 기존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략도 고려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지역단위별, 행사단위별 이벤트행사횟수를 줄임으로써 밀도높은 이벤트가 되도록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고유의 특성이 없이 이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벤트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벤트의 독특한 내용이 곧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이벤트사업은 지역고유의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방이나 답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결국 이벤트 자체가 특색있는 어떤 요소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Ⅲ. 동서지역 이벤트 현황

1. 경남지역 이벤트 현황

경남문화의 전통적특징은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이며, 불교문화 정수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전국 3종찰중 2종찰 : 해인사, 통도사), 문화재 및 사적지가 전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것(국가 지정 220점, 도지정 491점, 문화재 자료 236점)과, 이충무공, 사명대사 등 호국 충절의 땅이라는 것이다<표 2>.

<표 2> 경남문화의 전통적특징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AD 42년대)
 불교문화 정수 보존(전국 3종찰중 2종찰 : 해인사, 통도사)
 문화재 및 사적지 전지역 산재, 국가지정 220점, 도지정 491점, 문화재 자료 236점
 호국 충절의 땅

- 이충무공 삼대승첩 (옥포, 한산, 노량)
- 남명 유학의 집대성지 (남명문화 광재우의 53명 의병참가)
- 민·관·군 7만 순전(진주성)

또한 경남의 지리적 특성으로는 기후가 온화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고, 중,동부 공업지대와 서,북부 농어촌이 병존하며, 년 평균 2-3회에 해당하는 풍수해가 있다는 것이다<표 3>.

<표 3> 경남의 지역특성

-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수산자원
-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
- 중,동부 공업지대와 서,북부 농어촌의 병존
- 풍수해 우심-연평균 2-3회

위와같은 지역적특성을 살리고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경남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경남지역 이벤트실시 현황

이벤트명	개최시군	개최일시	개최장소
옥포대첩 기념제전행사	거제시	5/6-8	거제시일원
거제 예술제	거제시	10월중순	거제시일원

이벤트명	개최시군	개최일시	개최장소
독로문화제	거제시	10/1	거제시공설운동장 등
아림예술제	거창군	9/24-28	읍내일원
소가야 문화제	고성군	10월초순	공설운동장
가락문화제	김해시	음력 3/15전후	김해시일원
카네이션축제	김해시	5월중	김해시일원
진영단감제	김해시	10월중	김해시일원
도자기축제	김해시	10월초	진례면일원
만날제	마산시	음력 8/17-18	만날고개
가고파큰잔치	마산시	5/1-3	종합운동장등
밀양아랑제	밀양시	5월중	시내일원
밀양백중놀이	밀양시	음력 7/15	삼문동 고수부지
수양제	사천시	10월 중	시내일원
한려문화제	사천시	10월하순	사천시일원
풍어제	사천시	음력정월	사천시일원
지리산 철쭉제	산청군	6월 초순	세석평전
쌀축제	산청군	9-10월	차황면일원
지리산 평화제	산청군	10/10-11	산청읍일원
삼랑문화제	양산시	10/4-6	양산시일원
의병제전	의령군	4/21-23	공설운동장 등
개천예술제	진주시	음력 10/3전후	진주시일원
진해군항제	진해시	4월초	시내일원
3.1민속문화제	창녕군	2/28-3/3	영산면일원
비사벌문화제	창녕군	10/7-9	창녕군일원
화왕산갈대제	창녕군	10월초	화왕산
부곡온천제	창녕군	11/18-20	부곡온천
창원아철제	창원시	3/31	시청앞 광장
고향의 봄 축제	창원시	4/1	종합운동장
호반예술제	창원시	8월 중	용지호수
창원단감제	창원시	10/30	창원실내체육관
한산대첩기념제전	통영시	10월초순	통영시일원
화개장터벚꽃축제	하동군	4월초	화개장터일원
하동문화제	하동군	4/15	하동군일원
아라문화제	합안군	9/30-10/2	가야읍일원
천령제	합양군	10/3-5	상림공원, 공설운동장
지리산고로쇠약수제	합양군	3월하순	아천면백무동
정대불사	합천군	음력 3월경	해인사내
황매산 철쭉제	합천군	5월경	황매산군립공원
대야문화제	합천군	10/9-10	군민운동장
황강축제	합천군	8월경	황강공원일원

이와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와 아울러 앞으로 경남에서는 '관광유통산업은 경남을 키우는 에너지'라는 뜻으로 대규모 관광복합유통단지를 개발예정으로서 <표 5>, 사명대사의 유적을 따라 이벤트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동의보감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태어난

산청에 한의학 성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경남지역 이벤트개발을 더욱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너지 효과는 크게 기대된다 할 것이다.

<표 5> 경남의 관광복합유통단지개발

거제 장목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 (1997 - 2006)	100만평 규모, 1조3천억원 소요 => '97.5.9 기공식 호텔, 콘도, 골프장 등 고용창출효과 44천명
서북부권 휴양단지 조성 (1997 - 2006)	주제별관광단지 특화개발 -둔철·다곡지구 => 골프장, 산악관광시설 조성 한려해상권과 연계한 산악·해양 관광벨트 구축
대규모 관광 복합유통단지 조성 (1995 - 2002)	김해 장유일원에 27만평규모 1일 13,000명 고용 창출, 연간 2000억원 소득 효과

경남도보에 실린 바에 의하면 경남도는 최근 전통한의학 치료효과와 한약재의 효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어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태어난 산청군에 50억원을 들여 한의학성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입지선정과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갔다. 경남 산청은 한의학을 계승시킨 고장으로 역사성과 자연 환경이 잘 조화된 곳으로써 '98. 12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하동-산청간 국도건설 등으로 접근이 대단히 용이해져 앞으로 지리산 국립 공원과 연계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한방촌은 50년대 한복을 입은 의원이 진맥을 하면서 직접 약을 조제해주는 풍경을 재현하고 지리산 주변에 재배되고 채취된 약재 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한방전문 병원을 두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약초 및 약재를 현지에서 싸게 사 가져갈 수 있도록 생약시장을 열고 단지내에는 약초향토방, 쑥찜방, 한방박물관, 한방학교, 한의학연구소 등 한방에 관련한 시설을 총망라하는 종합한방촌을 조성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본 종합 한방촌이 건설되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한방병원 등 시설운영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관광수익에 따른 세수증대로 지역개발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2. 전남지역 이벤트 현황

한국의 대표적 농도이자 예향으로 불리우는 전라남도는 2면이 바다에 접해 바다를 중히 여기는 신해양시대 개척의 최적지로서 풍부한 수자원, 중국대륙과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로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의 전통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전통소리, 국악, 미술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넓은 평야, 수려한 해상자원과 지리산, 월출산 등의 뛰어난 산세를 갖춘 독특한 지역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초로하여 전남 각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들이 행하여진다<표 6>.

<표 6> 전남지역의 주요 관광 이벤트

이벤트명	개최시군	개최일시	개최장소
땅끝 해맞이 대제	해남군	12/31-1/1	땅끝관광지
향일암 일출제	여수시	12/31-1/1	돌산읍 향일암
백도축제	여수시	3/1-10	거문도
산수유꽃 대축제	구례군	3/1-10	산동면 중동마을
광양시 매화축제	광양시	3/6-7	섬진마을
백운산 약수제	광양시	3/6	동곡리 약수제단
해남 매화꽃축제	해남군	3/20-31	보해 매실농원
영취산 진달래꽃축제	여수시	4/1-10	영취산일원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목포시	4/3-5	유달산일원
왕인문화축제	영암군	4/9-12	영암군일원
진도영등제	진도군	4/16, 8/13	회동-모도리
지리산 약수제	구례군	4/19-22	화엄사일원
낙안민속문화축제	순천시	5/3-5	낙안민속마을일원
여수남해안생선요리축제	여수시	5/3-8	오동도일원
여수진남제	여수시	5/3-8	진남경기장
홍길동축제	장성군	5/3-5	홍길동생가터
나비대축제	함평군	5/5-8	함평천광장 등
보성다향제	보성군	5/9-10	보성다원등
제암산 철쭉제	해남군	5/9-10	흑석산일원
검은모래 눈뜨는 날	여수시	6/1-10	만성리해수욕장
영광법성단오제	영광군	6/17-19	법성포 숲쟁이공원
참장어요리축제	여수시	7/24-26	여수시 경호동일원
게르마눔개펄축제	신안군	8/1-5	신안군증도면
섬진강변 축제	구례군	8/1-10	고수부지
압록강변축제	곡성군	8/1-3	압록유원지일원
완도장보고축제	완도군	8/7-9	완도항일원
목포권 도자기축제	목포시	9/1-27	하당공한지
낙안민속문화축제	순천시	5/3-5	낙안민속마을일원
여수남해안생선요리축제	여수시	5/3-8	오동도일원
여수진남제	여수시	5/3-8	진남경기장
홍길동축제	장성군	5/3-5	홍길동생가터
나비대축제	함평군	5/5-8	함평천광장 등

이벤트명	개최시군	개최일시	개최장소
보성다향제	보성군	5/9-10	보성다원등
제암산 철쭉제	해남군	5/9-10	흑석산일원
검은모래 눈뜨는 날	여수시	6/1-10	만성리해수욕장
영광법성단오제	영광군	6/17-19	법성포 숲쟁이공원
참장어요리축제	여수시	7/24-26	여수시 경호동일원
게르마눔개펄축제	신안군	8/1-5	신안군중도면
섬진강변 축제	구례군	8/1-10	고수부지
압록강변축제	곡성군	8/1-3	압록유원지일원
완도장보고축제	완도군	8/7-9	완도항일원
목포권 도자기축제	목포시	9/1-27	하당공한지
무안연꽃대축제	무안군	9/10-13	회산연꽃방죽
강진청자문화제	강진군	9/16-20	대구면청자촌일원
남도음식대축제	순천시	10/1-31	순천낙안성민속마을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군	10/1-31	보성소리전수관
전어축제	광양시	10/9-10	진월면망덕포구
나주배잔치	나주시	10/15-25	나주배박물관
천관산 억새제	장흥군	10/18	천관산일원
백양단풍축제	장성군	10/22-24	백양사광장등
화순운주대축제	화순군	10/29-31	운주사일원
지리산 피아골 단풍제	구례군	10/31-11/1	지리산피아골일원
순천만 갈대제	순천시	11/6-8	순천만일원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로 전라남도 미술대전, 도민합창경연대회, 전남무용대회, 전남연극제, 판소리전국경연대회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들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수상레포츠대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하고 도민소득 증대를 꾀하며, 전라남도의 전통음식보존과 새로운 음식 발굴로 음식문화 계승하고 음식의 관광상품화로 관광객 흡수·유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남도 음식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벤트실시의 재정적 한계를 탈피한 생산적인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전시함으로써 남도음식문화와 전남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홍보효과를 진작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전남을 알릴 수 있는 남도 특유의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다. 즉 2002년 월드컵 축구와 2010년 해양 EXPO에 대비한 국제 이벤트 개발·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벤트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계중이다.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 축제」를 선정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추진목적을 가지고 「축제관광 투어페스티벌」, 및 외국 기초자치단체 유사축제와 상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진도 영등제, 남도음식대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등 기존의 도내 이벤트 집중지원을 통한 국제 축제화 도모하고, 세계 민속페스티벌, 철인3종대회 등 '국제 관광객 투어페스티벌'을 추진하며, 일본 사기현 청자문화제, 중국산동성 장보고 기념행사등 중국, 일본과의 기초자치단체 유사축제와 상호교류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다도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흑자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와 연계 국가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다. 그 추진방침은 첫째, 해양관광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전남의 특징과 여건등 개발전략 적극 반영하고, 둘째, 다양한 해양이벤트 개최 및 해양관광객 유치, 세계 각국 역사문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파크섬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IV. 동서지역 이벤트 활성화 방안

이상의 논의와 현재 또는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각종 이벤트들을 살펴 볼 때 각 지역에 적합한 이벤트들이 개발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교류 및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이벤트들을 개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동서관계활성화에 적합한 이벤트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동서지역 이벤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단위 이벤트는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공동체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각기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수려한 남해와 섬진강, 지리산 등의 자연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이들 자원들을 공유하는 이벤트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양 지역에 공통적인 요인을 가지는 역사적 사건,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이벤트들이 개발되면 양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 나아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먼저 지역환경적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로서 지리산 화개장터, 지리산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섬진강을 이용한 섬진강 탐사, 제철요리축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축제가 열릴 수 있다.

고유민속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전라민요와 고성등 경남민요를 번갈아 또는 양 민요를 한 곳에서 시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철과 산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광양제철과 마산·창원 지역의 기계공단의 제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다.

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 이순신 등의 활약을 격년제 또는 4년마다 양도에서 번갈아 주최하여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벤트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명대사의 활동무대를 따라 벌이는 이벤트, 또는 허준의 활동지역을 따라가며 시차를 두고 여는 전통한방이벤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이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지, 나아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실시를 위해서는 전남과 경남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양 지역에 공히 지역주민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경제발전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이벤트의 컨셉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남개발연구원 (1998), 경영수익사업: 국제비교 및 평가.
- 경상남도 (1998), 1998 경남의 사회지표, 경상남도.
- 경상남도 (1998), 1998 경상남도정백서, 경상남도.
- 박정선 (1996), 이벤트론- 이론과 사례, 도서출판 컴퓨러.
- 민병근역 (1994), 당신도 이벤트 연출자가 될 수 있다, 도서출판 가나다라.
- 안광호·유창조 (1998), 광고원론-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법문사.
- 이봉훈 (1997), 이벤트 교과서, 계백.
- 장은주 (1996), 지방자치단체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라남도 (1998), 1998 전라남도정백서, 전라남도.
- 정강환 (1996), 이벤트 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 한국관광공사 (1994), 이벤트산업활성화방안.
- Shimp Terence A. (1997), *Advertising, Promotion, and Supplemental Aspects of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4th. ed.